

병역필 여부에 따른 남자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림¹ · 박효정² · 신미경³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교수¹, 전임강사²,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³

Influence of Military Service Experience on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of Male College Students

Shin, Kyung-Rim¹ · Park, Hyo-jung² · Shin, Mee Kyung³

¹Professor, ²Full-time Instruct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³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Korea Nazaren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who fulfilled military service and those who did not, for providing basic data for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s for the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741 male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ersonal interviews using questionnaires from November to December 2007.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measurement tool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chi-square test.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of contraception / abortion ($p = .002$, $t = 3.16$), venereal disease ($p = .006$, $t = .2.73$), sexual attitude of sexual behavior ($p = .002$; $t = 3.13$) and sexual double think ($p = .047$, $t = 1.98$) according to military service 2)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ual behavior experience frequency of 9 items (friendship with opposite sex, kiss / embracing, petting, porno magazine / porno video contact, masturbation, sexual intercourse via anus, sexual intercourse via mouth, cause pregnancy, cause abortion: $p < .000$, $x^2 = 39.47$; $p < .000$, $x^2 = 55.88$; $p < .000$, $x^2 = 46.76$; $p = .034$, $x^2 = 6.77$; $p = .017$, $x^2 = 12.05$; $p = .003$, $x^2 = 14.24$; $p < .000$, $x^2 = 47.70$; $p < .000$, $x^2 = 23.86$; $p < .000$, $x^2 = 21.84$) respectively according to military servi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differ before and after the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so further study for detecting military sex culture character effecting difference in sex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is needed.

Key Words : Sexual behavior, Knowledge, Attitude, Military service, Male college studen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가상공간

에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성 관련 지식, 기술 및 태도를 대부분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의 산발적 자료와 음성적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다 (Woo, Park, & Choi, 2005). 이러한 대중 매체를 통한

Corresponding address: Shin, Mee Kyung,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Korea Nazarene University, 456 Ssangyong-dong, Cheonan 331-718, Korea. Tel: 82-41-570-7870, E-mail: splash92@paran.com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투고일 2008년 11월 12일 수정일 2009년 1월 28일 게재확정일 2009년 1월 30일

무차별적 유해한 정보 노출로 청소년의 성의식이 변화하여 성행동과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화였다(Kang, Song, & Lim, 2005).

성행동은 손잡기에서 성관계에 이르는 다양한 행동 양식으로, 결혼 전이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집단에서 이성과 손잡음, 이성과의 포옹, 이성과의 키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을 하고, 이성과의 가벼운 애무, 이성과의 진한 애무도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성과의 성관계까지 경험한 대학생이 다수이다(Lee S. M., 2004). 그런데 이러한 혼전 성교 경험의 증가 추세와는 달리 성교 경험자의 소수만이 성교시 항상 피임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러한 낮은 피임 실천율은 바로 임신 낙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o, 2001). Jo(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의 34.6%가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특히 남학생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Kang(2007)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성행동을 분석한 결과 성관련 매체 접촉경험, 자위행위, 성교, 피임 등 대체적인 성행동에 있어서 남학생들의 경험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이 성태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주로 성별이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성태도 개방성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Hur, 2001; Lee, 1990; Lee, 1995). 이렇게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성태도, 성행위, 성지식 비교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남학생만의 성문화 특성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Kang(2007)의 연구에서는 군필 및 보충역일수록,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나 남녀 공학의 분반 출신인 남학생, ‘남성 집단’의 출신인 남학생일수록 성경험이 더 많다고 하였다. 특히 성경험 예측요인 결과로 남녀 공학의 분반과 군필 및 보충역이 높은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임신시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군필 및 보충역이 영향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군인은 다른 나라로 파견됨으로써(Sopheab, Fylkesnes, Vun, & O'Farell, 2006) 아내와 여자 친구와 분리되어 있는 상황(Shefer & Mankayi, 2007)이어서, 그리고 군인의 조건인 남성다움, 사내다움의 상징으로

일시적이고 다수의 정상대를 가지면서 다양한 성행동을 경험한다고(Shefer & Mankayi, 2007)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행동은 성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주변 환경에 의해 많이 좌우되므로(Lee & Chon, 2006), 대학생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군대라는 환경 인자로 인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변화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더구나 건강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건강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행위가 가져오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지각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Lee D. S., 2004). 특히 이것을 성별에 따라 불건강 행위를 비교했을 때 남성의 불건강 행위 정도가 여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된다(Lee, 2007). 따라서 남학생들이 경험하는 군대, 남자 분반 출신 고등학교 등의 남성 집단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성관련 매체 접촉이나 성경험을 양성적으로 더욱 부추기는 사회문화적 영향인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학생과 구분되는 한국 남자 대학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병역필 여부에 따른 남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을 비교함으로써 남성 집단의 성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성 양상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이나 정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의 병역필 여부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차이를 규명하여 남자 대학생의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병역필 여부에 따른 성지식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병역필 여부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병역필 여부에 따른 성행동 경험 빈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성지식

성지식이란 생리적 현상을 포함한 사회·심리적 측면, 법률적 지식 등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Bae, 2002), 본 연구에서는 Jeon, Lee와 Lee (2004)의 성지식 측정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생식생리, 성심리, 임신, 피임 및 낙태, 성병 및 에이즈,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2) 성태도

성태도란 성에 대한 가치나 현상 및 남녀 간의 생리적 관습과 행동에 대해 반응하는 경험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경향을 의미한다(Nam, 2003). 본 연구에서는 Kang(2007)의 성태도 측정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성의식, 성행위, 순결, 이중적 성 가치관, 음란매체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3) 성행동

성행동이란 자위행위, 이성교제, 신체접촉이나 키스 등과 같은 간접적인 성관련 경험이나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Nam, 2003), 본 연구에서는 Kang(2007)의 성행동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이성교제, 성관련 매체접촉, 이성교제 깊이, 성교, 임신 및 낙태시킨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병역필 여부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 사업으로 구축된 전국 대학생의 성지식, 성관련 태도, 성행동 등에 관한 DB의 자료를 이차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7년 11월 19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국 대학생 중 성별, 대학 유형, 지역을 근간으로 한 비례할당표출법(Proportional Quota Sampling)으로 6개 대학을 거점으로 설문지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전국 대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중 여학생 2,259명의 자료를 제외한 남학생 3,741명의 자료만을 편의 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2007-3-1)에서 2007년 11월 11일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자의 모집에 있어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대상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지식

Parcel, Luttmann와 Meyers(1979)의 성지식 도구, Lee(1995)의 성지식 측정도구와 Sung(2000)의 측정도구를 Jeon 등(2004)이 수정 보완하여 만든 35문항의 성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성생리 8문항, 성심리 3문항, 임신 8문항, 피임 및 낙태 5문항, 성병 및 에이즈 10문항, 성폭력 1문항으로 구성되어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최저 점수 0점에서 최고 점수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 등(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 성태도

Kang(2007)의 성태도 측정도구로 성의식 10문항, 성행위 8문항, 순결 8문항, 이중적 성 가치관 6문항, 음란매체 3문항의 6영역 35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영역별 10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역별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 영역의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에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3) 성행동

Kang(2007)의 성행동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이성교재, 성관련 매체 접촉, 이성교재 깊이, 성교, 임신 및 낙태시킨 경험 여부를 묻는 11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병역필 여부에 따른 성지식과 성태도 평

균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병역필 여부에 따른 성행동 경험 빈도 비교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대상자가 성관련 응답을 할 때에 사실을 축소하거나 과다 응답 또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22.24세였으며, 군필자의 평균 연령은 23.33세, 미필자의 평균 연령은 20.5세였다.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전체집단에서 보았을 때 33.9%(1267명)로 가장 많았고 군필자에서는 2학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3,7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M ± SD or n(%)	Military service		p	t/x ²
			Fulfilled M ± SD or n(%)	Not completed M ± SD or n(%)		
Age(yrs)		22.24 ± 2.8	23.33 ± 2.6	20.50 ± 2.1	.000	37.46
Grade*	First grade	1,267 (33.9)	507 (21.9)	760 (53.5)	.000	537.19
	Second grade	1,103 (29.5)	725 (31.3)	378 (26.6)		
	Third grade	907 (24.2)	696 (30.0)	211 (14.8)		
	Fourth grade	354 (9.5)	310 (13.4)	44 (3.1)		
	Over fourth grade	105 (2.8)	77 (3.3)	28 (1.9)		
	No response	5 (.1)	4 (.1)	1 (.1)		
Marital state*	Unmarried	3,653 (97.6)	2,255 (97.2)	1,398 (98.4)	.077	23.36
	Married	78 (2.1)	58 (2.5)	20 (1.4)		
	No response	10 (.3)	7 (.3)	3 (.2)		
Religion*	Protestant	952 (25.4)	588 (25.3)	364 (25.6)	.000	30.20
	Catholic	348 (9.3)	205 (8.8)	143 (10.0)		
	Buddhist	414 (11.1)	269 (11.6)	145 (10.2)		
	None	1,927 (51.5)	1,187 (51.3)	740 (52.1)		
	Others	96 (2.6)	68 (2.9)	28 (2.0)		
	No response	4 (.1)	2 (.1)	1 (.1)		
Military		3,741 (100.0)	2,320 (62.0)	1,421 (38.0)		

* Fisher's exact test.

이 31.3%(725명)으로, 미필자에서는 1학년이 53.5% (760명)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대부분 미혼 (97.6%)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25.4%(952명)로 가장 많았다. 병역필 여부는 군필자가 62%(2,320명), 미필자가 38%(1,421명)이었다. 병역필 여부에 따라 나이, 학년, 종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00, t = 37.4; p = .000, \chi^2 = 537.19; p = .000, \chi^2 = 30.20$), 결혼여부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대상자의 성지식

대상자의 성지식 정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군필자의 총 성지식 점수는 35점 만점에 평균 21.65 \pm 7.20점이었으며, 미필자의 총 성지식 점수는 평균 21.33 \pm 7.02로 군필자와 미필자 간의 총 성지식 점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175, t = 1.36$). 단, 생식생리, 성심리, 임신, 피임/낙태, 성병, 성폭력의 6개 영역으로 성지식을 구분하여 영역별 병역필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피임/낙태($p = .002, t = 3.16$)와 성병 영역($p = .006, t = 2.73$)에서 군필자와 미필자의 성지식 정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군필자가 미필자에 비해 두 영역 모두의 성태도 점수가 높았다.

Table 2. Description of sexual knowledge (N=3,741)

Sexual knowledge	Military service		t	p
	Fulfilled	Not completed		
	M \pm SD	M \pm SD		
Sex physiology	5.40 \pm 2.13	5.50 \pm 1.97	-1.37	.171
Sex psychology	2.35 \pm .96	2.34 \pm .95	.48	.634
Pregnancy	4.65 \pm 2.00	4.60 \pm 2.06	.96	.335
Contraception/abortion	3.15 \pm 1.40	3.01 \pm 1.46	3.16	.002
Venereal disease	5.55 \pm 2.24	5.35 \pm 2.20	2.73	.006
Sex violence	.46 \pm .49	.44 \pm .49	1.16	.246
Total	21.65 \pm 7.20	21.33 \pm 7.02	1.36	.175

3. 대상자의 성태도

대상자의 성태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총 성태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군필자는 평균 65.51 \pm 7.44점이었으며 미필자는 평균 65.03 \pm 17.93점으로 군필자와 미필자간의 총 성태도 점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5, t = 1.64$). 단, 성의식, 성행위, 순결, 이중적 가치관, 음란매체의 5개 영역으로 성태도를 구분하여 영역별 병역필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성행위($p = .002, t = 3.13$)와 이중적 가치관 영역($p = .047, t = 1.98$)에서 군필자와 미필자의 성태도 정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군필자가 미필자에 비해 두 영역 모두의 성태도 점수가 높았다.

Table 3. Description of sexual attitude (N=3,741)

Sexual attitude	Military service		t	p
	Fulfilled	Not completed		
	M \pm SD	M \pm SD		
Sex consciousness	61.11 \pm 9.23	61.64 \pm 10.26	-1.62	.106
Sexual behavior	77.73 \pm 13.01	76.32 \pm 13.77	3.13	.002
Purity	61.30 \pm 11.90	60.60 \pm 12.08	1.72	.085
Sexual double think	64.83 \pm 10.88	64.10 \pm 10.93	1.98	.047
Lewdness media	60.15 \pm 14.58	59.88 \pm 15.12	.54	.588
Total	65.51 \pm 7.44	65.03 \pm 17.93	1.84	.065

4. 대상자의 성행동

대상자의 성행동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성행동은 이성교재($p < .000, \chi^2 = 39.47$), 키스/포옹($p < .000, \chi^2 = 55.88$), 패팅($p < .000, \chi^2 = 46.76$), 포르노 잡지/비디오 접촉($p = .034, \chi^2 = 6.77$), 자위행위($p = .017, \chi^2 = 12.05$), 항문성교($p = .003, \chi^2 = 14.24$), 구강성교($p < .000, \chi^2 = 47.70$), 임신시킨 경험(p

< .000, $\chi^2 = 23.86$), 낙태시킨 경험($p < .000$, $\chi^2 = 21.84$)에서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경험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란대화와 동성성교에서는 군필자와 미필자간의 경험빈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V. 논 의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들은 성적 욕구를 경험하지만 해부 생리학적 차이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르게 성욕을 경험하고 행동한다. 즉, 성적 성숙은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일찍 이루어지나 남성에게서는 공격적이고 정복 지향적인 성이 격려되고 여성에게는 수동적인 성행동과 성욕의 억제를 미덕으로 강조하는 사회 환경이 남자 청

소년 및 대학생들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성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Lim & Han,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군대라는 남성만의 집단문화를 경험한 남자 대학생들의 성의식,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여자 대학생보다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닌 남자 대학생의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식생리, 성심리, 임신, 피임/낙태, 성병, 성폭력의 6개 영역으로 성지식을 구분하여 영역별 병역필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피임/낙태와 성병 영역에서 군필자와 미필자의 성지식 정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성지식 정도가 피임/낙태와 성병 영역에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임신시킨 경험

Table 4. Description of sexual behavior

(N=3,741)

Sexual behavior item		Military service		χ^2	p
		Fulfilled	Not completed		
		n (%)	n (%)		
Friendship with opposite sex	Yes	1900 (81.90)	1042 (73.33)	39.47	.000
	No	419 (18.06)	379 (26.67)		
Kiss / embracing	Yes	1891 (81.51)	1010 (71.08)	55.88	.000
	No	428 (18.45)	410 (28.85)		
Petting	Yes	983 (42.37)	442 (31.10)	49.76	.000
	No	1333 (57.46)	978 (68.82)		
Pornomagazine / pornovideo contact	Yes	1977 (85.22)	1168 (82.20)	6.77	.034
	No	342 (14.74)	253 (17.80)		
Lewdness talk	Yes	271 (11.68)	136 (9.57)	6.57	.087
	No	2045 (88.15)	1285 (90.43)		
Masturbation	Yes	1850 (79.74)	1076 (75.72)	12.05	.017
	No	467 (20.13)	344 (24.21)		
Sexual intercourse with same sex	Yes	46 (1.98)	31 (2.18)	2.00	.571
	No	2271 (97.89)	1390 (97.82)		
Sexual intercourse via anus	Yes	108 (4.66)	34 (2.39)	14.24	.003
	No	2209 (95.26)	1387 (97.61)		
Sexual intercourse via mouth	Yes	598 (25.78)	232 (16.33)	47.70	.000
	No	1719 (74.09)	1189 (83.67)		
Cause pregnancy	Yes	165 (7.11)	49 (3.45)	23.86	.000
	No	2152 (92.76)	1372 (96.55)		
Cause abortion	Yes	154 (6.64)	49 (3.45)	21.84	.000
	No	2163 (93.36)	1372 (96.55)		

Missing data excluded.

과 낙태 시킨 경험의 빈도가 더 높았다. 이는 성지식이 높지만 성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지식 정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지식이 높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행위 시 콘돔 사용 등의 안전한 성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Williams & Goebert, 2003). 더구나 대학생 시기가 생애 주기에서도 가장 최적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만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 혹은 무관심과 부주의 등으로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소홀하기 쉬움을 시사해준다(Kim, 2007). 따라서 단지 성지식을 높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지식 습득을 기반으로 건강에 위대한 성행동 변화를 성병 예방 등의 건강증진행위로 유도하는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성행위 성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태도가 가정에서부터 사회·문화적 배경까지의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내면화되며,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와 태도에 맞추어 사회화되는(Kim, 2005) 점을 고려하면 군대라는 집단 문화가 성행위 성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성행동이 자신의 성태도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Park, 2002) 본 연구결과에서 군필자의 성행위 성태도가 미필자보다 개방적이어서 성행동의 빈도가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즉, 대상자의 성행동에서 이성교제, 키스/포옹, 패딩, 포르노 잡지/비디오 접촉, 자위행위, 항문성교, 구강성교 경험 모두에서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Jang(2006)의 한국 군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성경험 비율 중 키스와 포옹의 경험 비율이 78.3%, 자위행위가 84.1%, 혼전성교 경험자가 59.2%, 동성애 경험자가 1.9%인 것처럼 한국 군인들이 다양한 성행동을 자주 경험함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나이 또래 남성들은 성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친구에 의한 압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Okonkwo, Fatusi, & Ilika, 2005) 상하 위계질서가 명확하고 대부분 사회에서 분리되어 그들

만의 법률이 있는(Lee, Kim, & Kim, 2007) 군대 집단에서 성행동을 양성적으로 더욱 부추기는 환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병역에 따라 집단 간 나이,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결혼여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혼전 성행동이 나이가 들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영향에 의해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성행동 빈도가 많은 것이 모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음성적 성행동의 빈도가 많음으로서 초래되는 성병으로 인해 위협될 가능성이 있는 군인들의 건강(Gaydos, Quinn, & Gaydos, 2000) 유지를 위하여 군대 차원의 생식건강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성행동 항목별 유경험자의 비율은 이성교제가 대상자의 81.9%, 키스/포옹이 81.5%이었다. 이는 키스와 포옹은 근래 들어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행동으로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매우 허용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Ko, 2001). 포르노 잡지/비디오 접촉에 대한 대상자의 유경험자 비율은 8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특히 군필 및 보충역이었던 학생들과 남고나 남녀 공학에서는 분반 출신인 남학생들의 경우 성관련 매체 접촉경험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Kang, 2007).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성 관련 지식, 기술 및 태도를 대부분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의 산발적 자료와 음성적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Woo et al., 2005). 또한, 자위행위가 79.7%로 대상자 대부분이 자위행위 유경험자였다. 자위행위는 생식기의 자기 자극에 의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며(Hallym Science Institute, 1995), 자위행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남자 고등학교, 남녀 공학의 분반, 군필 및 보충역일수록,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와 성인만화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자위행위의 경험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Kang, 2007)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도 자위행위 유경험자의 비율이 이러한 영향요인의 경험률이 높음으로서 초래된 결과라

본다. 상대방을 애무하는 행위인 패팅의 유경험자는 대상자의 4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성교를 하기 전 전회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성교 대신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를 말하는 구강성교는 대상자의 25.8%가 경험이 있었다. 항문성교는 상대방의 항문에 대한 성기의 삽입을 의미하며 대상자 중 무려 4.7%가 유경험자였다. 이는 남성의 동성애자 간에 주로 행하여져 성병 발생률이 높은 것을 고려하고, 항문의 괄약근이 여성의 질과는 달라서 자극을 받으면 수축작용이 더 강해지고 분비액이 없어 윤활작용을 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항문의 성기 삽입을 당하는 사람은 항문 부위의 손상이나 실금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Ko, 2001), 항문 성교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성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성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성행동 조사 결과에서 임신시킨 경험과 낙태시킨 경험이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경험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는 여성에게 반복되는 임신과 낙태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군필자를 상대로 하는 피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이의 실천을 유도하는 행동변화 간호중재법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군필자 대학생이 미필자 대학생보다 개방적인 성태도와 다양한 성행동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의 성행동 의도에 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그릇된 성문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은 임신과 낙태 비율의 증가, 성병에 대한 노출 우려, 부적절한 성행위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군필자의 어떠한 상황이 군대를 가기 전과 틀린 성 양상을 유발하게 되는지에 대한 추후 조사연구를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의 확립을 위한 군대 내의 성교육이나 성상담 등의 간호 중재 모색이 요구된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병역필 여부에 따른 남학생의 성의식, 성태도 및 성행동을 파악함으로써 남자 대학생의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07년 11월 19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국 대학생 중 성별, 대학 유형, 지역을 근간으로 한 비례할당표출법(Proportional Quota Sampling)으로 6개 대학을 거점으로 설문지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연구참여에 동의를 한 전국 대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중 남학생 3,741명의 자료를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성지식 측정도구(Jeon et al., 2004), 성태도 측정도구(Kang, 2007), 성행동 측정도구(Kang, 2007)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서술 통계와 t-test,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 병역에 따른 총 성지식 점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하부 영역별 성지식 중 피임/낙태와 성병 영역에서 군필자와 미필자의 성지식 정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2, t = 3.16; p = .006, t = 2.73$). 총 성태도 점수에서 병역필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성지식, 성행위, 순결, 이중적 가치관, 음란매체의 5개 성태도 하부 영역별 병역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성행위와 이중적 가치관 영역에서 군필자와 미필자의 성태도 정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2, t = 3.13; p = .047, t = 1.98$). 성행동은 이성교제, 키스/포옹, 패팅, 포르노 잡지/비디오 접촉, 자위행위, 항문성교, 구강성교, 임신시킨 경험, 낙태시킨 경험에서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경험하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 \chi^2 = 39.47; p < .000, \chi^2 = 55.88; p < .000, \chi^2 = 46.76; p = .034, \chi^2 = 6.77; p = .017, \chi^2 = 12.05; p = .003, \chi^2 = 14.24; p < .000, \chi^2 = 47.70; p < .000, \chi^2 = 23.86; p < .000, \chi^2 = 21.84$).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역필 여부에 따른 차이를 일으키는 군대 성문화의 특성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와 군필자와 미필자 간의 성행동 차이를 유발하는 군대의 특수한 상황을 조사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군대 내에서 요구되는 성상담이나 성교육의 제공을 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e, S. M. (2002). *Effects of adolescents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Gaydos, C. A., Quinn, T. C., & Gaydos, J. C. (2000). The challenge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for the military: What has changed? *Clin Infect Dis*, 30(4), 719-722.
- Hallym Science Institute. (1995). *A transition period of Korean value*. Seoul: Sowha.
- Hur, J. K.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and adolescent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Jang, E. M. (2006).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among soldiers - focused on republic of Korea army and United states army personal stationed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Jeon, K. S., Lee, M. Y., & Lee, S. J.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 Korean Soc Health Educ and Promot*, 21(1), 45-68.
- Jo, M. H. (2004).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culture of sexuality. *Res Rev*, 32, 5-37.
- Kang, H. Y.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Kang, S. E., Song, E. J., & Lim, E. J. (2005).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girls. *J Korean Acad Adult Nurs*, 17(5), 753-761.
- Kim, J. Y. (2005). *The analysis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by communication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N. S. (2007).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influencing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Optimism and coping skills. *J Korean Acad Adult Nurs*, 19(5), 719-728.
- Ko, Y. S. (2001). *A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D. O., Kim, E., & Kim, M. Y. (2007). Sexual violence among men in the military in south Korea. *J Interpers Violence*, 22(8), 1024-1042.
- Lee, D. S. (2004). A structural model development of health insensitivity in Korean adult. *J Korean Acad Adult Nurs*, 16(3), 355-365.
- Lee, D. S.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information seeking style and high risk behavior in Korean adults. *J Korean Acad Adult Nurs*, 19(2), 217-229.
- Lee, E. J. (1990). *Study on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need for sex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S. H., & Chon, M. Y. (2006). Undergraduate students' sexual behavior and influencing factors: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 Korean Acad Adult Nurs*, 18(4), 553-563.
- Lee, S. M. (1995). *A study of sexual permissiveness of teenag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Lee, S. M. (2004). *Undergraduate students' sexual behavior and influencing factors: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Lim, Y. S., & Han, S. C. (2000).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teenager*. Seoul: Hakmuna.
- Nam, K. O.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sex and sex behavior and their cyber-sex addiction for improvement of adolescence welfare. *Korean Assoc Public Welfare Adm*, 13(1), 65-86.
- Okonkwo, P. I., Fatusi, A. O., & Ilika A. L. (2005). Perception of peers' behaviour regarding sexual health decision making among female undergraduates in Anambra State, Nigeria. *Afr Health Sci*, 5(2), 107-113.
- Parcel, G. S., Luttmann, D., & Meyers, M. P. (1979). Formative evaluation of a sex education course for young adolescents. *J Sch Health*, 49(6), 335-339.
- Park, S. Y. (2002).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Shefer, T., & Mankayi, N. (2007). The (hetero)sexualization of the military and the militarization of (hetero)sex: Discourse on male (hetero)sexual practices among a group of young men in the South African military. *Sexualities*, 10(2), 189-207.
- Sopheab, H., Fylkesnes, K., Vun, M. C., & O'Farrell, N. (2006). HIV related risk behaviors in Cambodia and effects of mobility. *J Acquir Immune Defic Syndr*, 4(1), 81-86.
- Sung, S. M. (2000).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exuality education programs for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Williams, J. K., & Goebert, D. (2003). Assessing sexual health behaviors of resident physicians and graduate students. *Acad Psychiatry*, 27(1), 44-49.
- Woo, N. S., Park, M. S., & Choi, W. K. (2005).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xual knowledge, behavior, and educ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ians. *Korea Youth Res*, 14(4), 127-150.